

“국가애도기간 희생자 추모 동참을”

(11월 5일까지)

도교육청,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대책·점검 분주
서거식 교육감, 전략회의서 축제성 행사 연기 등 당부
4~6일 예정 교육감배 스포츠대회·기관장 워크숍 연기

지난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참사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서는 재난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서거식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추모 분

위기에 맞춰 축제성 행사는 중지 또는 연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5일까지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조기를 계양하고, 체험활동·체육대회·학예발표회 등의 행사를 가급적 자제 및 연기해 줄 것도 안내했다.

또한 모든 교직원에게는 겸손한 복장에 근조 리본을 패용할 것을 권장하고, 회식과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4~6일 예정됐던 배드민턴, 농구, 사격, 역도 등 교육감배 종목대회와 나라사랑 연주, 기관장 워크숍 등을 연기했다.
서 교육감은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모든 학교까지 국가애도기간 동안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는 데 동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조경학과 '태화강 정윈스토리페어' 동상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ANDANTE-숨 쉬는 지구 팀(유민·김태영·최현민)'이 지난달 28일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2022 태화강 정윈스토리페어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숨 쉬는 정윈'을 주제로 지난 8월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시민과 학생 정윈 20개 울산조경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역공동체 작품 5개 등 총 25개 작품이 전시됐다.
유민 ANDANTE-숨 쉬는 지구 팀장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람도 자연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안뜰에 정윈은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느리게 흘러가는 지구의 시간을 담아 삶의 발딛 숨속 작은 틈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은 올해 ‘꽃길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우수상과 ‘정윈드림 프로젝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상 등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교원 및 학부모 대상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연 가운데, 서거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16~22일 교장 공모 접수 진행

교원·학부모 대상 '교장공모제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식)은 교장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16~22일 교장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원 및 학부모 대상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가졌다.
서거식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교장공모제 활성화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 승진임용 방식의 교장 임용 방식을 다변화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모기간 동안 지원자가 없거나 접수 인원이 1명에 그칠 경우 23~25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유형은 초빙형·내부형·개방형 등 총 3가지다. 초빙형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

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장자격 미소지자도 응모 가능하다.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등학교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는 정년퇴임 및 중임 만료 등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공모교장 희망·선호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상 학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에 관심 있는 교직원과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운영 취지와 교장공모제 방식 및 추진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어 사매초, 회현초, 감곡중 정승고 등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초빙형과 내부형 교장자격 소지자 및 미소지자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 발표를 통해 교장공모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의 이해를 도왔다.
현재 도내에는 초빙형 42개교, 내부형 26개교, 개방형 5개교 등 총 73개교에서 공모 교장이 학교를 이끌고 있다.
서거식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면서 “초·중 등 교육분야의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해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전국 교대 좋은 수업 탐구대회 '장관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달 28일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교대 좋은 수업 탐구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탐구대회는 예비교원의 자유로운 수업 탐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수업실연 과목과 수학 과목에서 운영원(음악, 3), 안나현(체육, 3) 학생이 각각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수업실연 사회와 창체 과목에서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장상, 수업비평 도덕 과목에서 금상, 미술·실과, 음악 과목에서 동상으로 춘천교대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오미리아 초등교육연구원은 “이번 수업 탐구대회 준비에 구슬땀을 흘린 학생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정규 교육과정과 이번 대회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초등교육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 5년 연속 '금'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 학생 18명

남원제일고는 조리제빵과(지도교사 최정원) 학생 18명이 지난달 28일과 29일, 한국조리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18개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서울 양재동 AI센터에서 개최된 2022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에 참가해서 전일 수상,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요리대회는 조리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외식산업 발전 및 국민의 식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식품조리 및 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 하반기 단일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 규모 행사이다. 수상내역은 △국제요리부문 더운 요리부문 금메달 임현준, 찬요리부문 금메달 임현준 △세계요리 전시부문 금메달 이유비, 김진우, 은메

달 김민지, 이서혁 △세계요리 디지털 전시부문 금메달 김은희, 강태경, 최유진, 오동운 이승은, 오유진, 문혜원, 강리안, 은메달 양기혜, 임정인 학생이 수상하며 함께 금메달 6팀, 은메달 3팀이 수상했으며, 종합합상으로 기관장상에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 조리기능협회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최정원 교사는 “요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실력이 날아가 향상되어 대회에서 전일 수상하게 되었고 교사로서 매우 기쁘고 학생들이 더욱 일취월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누에고치실 활용 바이오소재 전기발생 특성 새롭게 규명

전북대 정창규 교수팀, 실크 이용 동작 센서 제작
나노·에너지 분야 저명 학술지 온라인판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실크(비단)의 원재료인 누에고치실을 활용한 바이오소재에서의 전기발생 특성을 새롭게 규명하고, 친환경성 동작센서를 개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학 정창규 교수팀(공대 신소재공학부)은 누에고치실 기반 나노섬유 필름을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을 활용해 제작하고, 간단한 에탄올 담금처리 에 의해 유도된 전기발생 효과를 활용한 친환경성 무전원 동작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창규 교수



손창완 대학원생

명되지 않은 바이오소재의 압전현상 원인에 대한 이해도가 연구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바이오

소재의 압전현상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응용하기 위해 누에고치실을 나노단위 섬유형태의 필름으로 제작해 연구를 진행했다. 간편한 에탄올 용액 담금처리를 활용해 누에고치실을 구성하는 피브로인 단백질의 비정질성 알파상을 결정성 베타 단백질 상으로 변환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분자구조의 변화에 의해 압전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증폭됨을 입증했다. 이를 분석해 기존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누에고치실의 전기적인 특성 메커니즘이 분자구조적 변화에 의해 증가하는 수소결합이 갖는 쌍극자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기존 압전소재들과는 다른 이유로 압전현상과 유사한 특성이 발생한다는 것.
나아가 제작된 누에고치 나노섬유 필름은 신체 각 부위에 부착하였을 때, 신체 동작 정도나 동작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발전 센서로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연구팀이 제작한 누에고치 나노피이버 필름은 흡수에서도 특성 부산물 없이 분해되는 것을 확인, 우수한 친환경성과 생체적합성을 가진다는 것을 검증했다.
정창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바이오 고분자의 화학적·구조적 특성 분석을 이용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바이오소재의 유사 압전현상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차후 친환경 바이오 고분자의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세라믹 계열 압전소재 대비 낮은 압전 특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정확히 규

국제교류 수업 우수사례 공유

전북도교육청, 워크숍 진행... 초·중·고 교사 90명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식)은 지난달 29일 전주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국제교류 이해 및 국제교류 수업 운영의 실제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 교사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워크숍은 2023년 글로벌인재양성 사업과 연계, 학교 간 국제교류에 대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마련됐다.
서거식 교육감은 “세계화 시대에 맞춰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 실력은 물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제교류 수업이 더욱 확산되길 바라며, 내년에는 온라인 수업교류 확대와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국제교류 수업 참여학교 모집은 11월 중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4일까지 '하반기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식)은 1~4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무실무사 16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정은성 기자

을 통해 교무실무사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직장 내 학교 구성원으로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행동유형(DISC) 검사를 통한 대인관계 성공 비법 △강성 영상 기획 및 제작 활용 등이 있다. /정은성 기자